

광복 후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절박함은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며,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도전은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다. 대한민국 건설 70년의 역사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사와 함께했고, 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이끈 것은 언제나 건설인이었다.

국가 재건사업에 앞장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황량한 국토에 도로, 교량, 철도, 댐, 발전소, 공항 등을 건설해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거시설과 신도시, 수많은 빌딩을 건설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놓일 때마다 해외 건설시장을 개척해 국가 발전의 중추적 마련에 앞장섰고 그 결과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은 전 세계를 여러 번 놀라게 할 정도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지 않게 현재의 건설은 위기에 놓여 있다. 과거 제조업에 빚대 사양산업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극한 수주경쟁,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젊은층의 외면, 숙련공의 부족, 게다가 자정 노력과

강원포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제도의 마련으로 한결 개선됐음에도 비리의 온상과 부실시공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은 무한 발전을 계속해 왔다.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해도 건설의 가치는 여전하다. 건설산업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93만명이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설사업 추진 시 과도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의 개선이다. 셋째, 소규모 건설공사의 시공자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외환위기와 수주의 어려움, 경영여건 악화, 업체 구조조정 등의 악재로 건설업계 전반이 체력 고갈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건설인들이 이뤄 낸 성과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전쟁의 폐

허를 딛고 국토의 기반시설을 다진 건설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선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됐다. 또한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구하고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건설인이었다. 태동 70년을 맞은 대한민국 건설업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 특유의 독심과 개척정신으로 이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향후 100년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때다.

대한민국 100년의 조건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저성장 극복,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타 산업에 비해 큰 산업이다. 또한 건설은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 같지만 시각적 미려함, 생활의 편리함, 첨단공법의 적용, 사물인터넷 등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첨단 중의 첨단 기술이 융합된 종합 예술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건설이 태동한 지 70년이 되는 올해에 즈음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건설산업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경제의 주축으로 거듭나는 산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종역사



◊횡성역사



◊토내역사



◊강릉역사



◊진부역사



◊평창역사



◊원주~강릉 복선철도 120.7km 전 구간 KTX 시험운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열쇠인 6개 역사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주 만종역사, 횡성역사, 토내역사, 평창역사, 강릉역사의 모습. 진부역사와 평창역사는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윤석·권태명·김대호·신세희기자